

# 미얀마 유혈사태...“양곤서만 59명 사망”

군경, 시위대에 무차별 총격  
 누적 사망자 100명 넘어서  
 양곤 인구밀집 지역 4곳 계엄령  
 전국 모바일 인터넷 차단  
 한인회 오인 피해 방지 태극기 배포

지난달 1일 쿠데타 이후 최악의 유혈 참사가 발생한 다음 날인 15일에도 미얀마 군부는 시위대에 대한 탄압을 이어갔다. 쿠데타 한 달 만 가량이 지났지만 악화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반(反) 쿠데타 운동의 기세를 완전히 꺾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지 언론 및 SNS 그리고 외신 등에 따르면 미얀마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휴대전화 인터넷(모바일 인터넷)이 끊겼다. 네트워크 모니터링 업체인 '넷블록스'는 트위터를 통해 “모바일 네트워크가 미얀마 전국적으로 차단됐다”면서 “대부분의 사용자는 일상 생활과 시위에서 휴대전화에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얀마 현지에서는 인터넷 접속이 무기한 차단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SNS에서 흘러나왔다.

군정의 휴대전화 인터넷 차단 조치는 유혈진압과 각종 폭력을 시민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해 휴대전화 상에서 각종 SNS에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시민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올린 동영상은 미얀마의 현 상황을 국제사회에 가장 잘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정은 또 이날 양곤 4곳에 대해 추가로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외신이 전했다. 관영매체인 MRTV는 북다곤과 남다곤, 다곤세이칸 그리고 북오갈라빠에 대해 계엄령이 선포됐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또 제2도시 만달레이 일부 지역

도 계엄령이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군부는 앞서 전날엔 양곤 내 흘라잉타야와 쉐빠다 등 인구 밀집 지역 2곳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6곳은 양곤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지역으로 알려졌다.

현지 매체인 미얀마 나우는 양곤 종합병원과 흘라잉타야 병원, 민간준 병원 3곳의 지료를 취합한 결과, 전날 하루에만 양곤에서 최소 59명이 사망하고 129명이 다쳤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의료진과 구급대원들은 실제 사상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군경은 이날도 중부 민간에서 시위대를 향해 총격을 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한 18세 시위 참가자는 통신에 “소녀와 소년 한 명이 각각 머리와 얼굴에 총을 맞았다. 두 명이 숨진 걸로 들었다”고 말했다.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미안마 한국대사

관은 긴급 공지문을 통해 “계엄령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치안 유지에 필요한 경우 군이 매우 강력한 조치를 현장에서 취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대사관측은 “오는 27일 국군의 날까지 치안을 정상화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덧붙였다.

이와 관련, 주미안마 한인회는 흘라잉타야에 진출한 한국 봉제업체들이 중국 업체로 오인당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태극기 50장 가량을 이날 배포했다고 이병수 한인회장이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밝혔다. 한인회는 추가로 태극기를 더 확보해 한국 업체들에 배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전날 흘라잉타야에서 중국인이 운영하는 다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중국인 직원들도 다치는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14일 쿠데타 반대 시위가 벌어지는 도중 총격을 당한 시민이 동료 시위대원들에 의해 안전한 장소로 옮겨지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중국 베이징의 도로와 건물들이 황사에 휩싸여 있다. 베이징시 기상대는 이날 오후 들어 처음으로 황사 황색경보를 발령했다. /연합뉴스

## 베이징 하늘 누렇게 뒤덮은 황사...올 첫 정보

15일 중국 수도 베이징이 황사로 온통 누렇게 뒤덮였다.

베이징시 기상대는 이날 오후 들어 처음으로 황사 황색경보를 발령했다. 기상대는 이날 오전 중대 부분 지역에서는 황사로 인해 가시거리가 1km 이하일 것으로 예상했다고 중국신문망 등이 전했다.

월요일인 이날 황사까지 겹쳐 베이징의 출근길에는 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베이징 당국은 아동과 노인, 환자 등은 외출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중국환경모니터센터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베이징의 실시간 공기질지수(AQI)는 최고치인 500에 달해 오염 수준은 최악인 '심각한 오염'(AQI 301~500) 수준이었다.

가장 주된 오염물질은 황사가 주로 해당되는 PM 10이었다. PM 10 농도는 오전 8시에 1370 $\mu\text{g}/\text{m}^3$ 에 이르렀다. 일부 지역에서는 PM 10 농도가 한때 2천 $\mu\text{g}/\text{m}^3$ 을 넘었다.

베이징에서는 이날 강한 바람과 함께 탁한 황사로 실외에서 눈을 뜨기가 어려울 정도였다. 이번 황사는 전날 밤 몽골 남부에서 기류를 타고 남해해 이날 새벽 베이징에 도달했다.

베이징은 지난주에도 초미세먼지로 인한 대기 오염에 시달렸었다.

한편 중국 국가입업초원국은 올해 중국 북방 지역에 황사가 6~9차례 탁칠 것으로 최근 예상했다. /연합뉴스

## 미국 국무·국방장관 ‘北 위협 증대’ 인식 표명

일본·한국 순회 방문 앞두고

“바이든 정부 대북정책 철저 검증”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15일부터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 고위 관리가 북한의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14일(미국 현지시간) 워싱턴발 기사에서 익명의 미 정부 고위 관계자가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 접촉 시도 사실을 밝히면서 한국과 일본 등 주변의 모든 나라와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위협이 증대하고 있다는 인식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미 행정부 고위 관리가 인용해 올 1월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가 2월 중순 이후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 막후 접촉을 시도했으나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이 인용한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통신 보도 내용을 확인하면서 접촉 시도 배경에 대해 “대립 격화의 회피”가 목적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 정부 전반의 대북 정책을 철저히 검증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한일 양국의 의향을 중시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검증을 수주 안에 끝내고 싶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성 김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도 지난 12일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수주 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로 미뤄볼 때 교도통신이 이 기사에서 인용한 익명의 관계자는 김 차관보 대행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16일 열리는 블링컨 국무장관, 오스틴 국방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장, 기시 노부오(岸信夫) 방위상이 참여하는 미일외교·국방 각료 간의 안보협의위원회(2+2)에서도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의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 호건 美주지사 “한국계 내 딸들도 차별 느껴”...증오범죄 맹비난

한국계 부인 뒤 ‘한국 사위’ 별칭

“아시아계 증오 터무니없고 용납 안돼”

“한국 사위”라는 별칭이 붙은 래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는 14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후 미국 내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범죄가 증가한 것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호건 주지사는 이날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서 가족의 경험담을 소개했다.

호건 주지사의 부인은 한국계인 유미 호건 여사로, 그는 2004년 ‘싱글맘’ 유미 여사와 결혼했다. 유미 여사의 딸 셋은 모두 가정을 꾸렸다.

호건 주지사는 “내 아내, 세 딸, 손자 모두 아시아계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일종의 차별을 느꼈다”고 말했다. 부인의 교회 친구, 딸들의 친구 일부도 “정말 끔찍한 대우를 받았다”라고도 전했다.

또한 아시아계들이 식품점에서 괴롭힘을 당하거나 욕설을 듣는 일, 한국에서 오거나 미국에서 태어났음에도 ‘중국 바이러스’라고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는 일들도 언급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증오범죄는 지난해 7% 감소했지만 아시아계에서는 150% 증가했다”며 “터무니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호건 주지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1일 연설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을 노린 악랄한 증오범죄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한 데 대해 감사하다는

뜻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이들 증오범죄에 대해 “우리가 통제해야 할 어떤 것”이라며 “나는 더 많은 사람이 목소리를 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1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자신의 가족 사진을 게재한 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감사를 전했다. 지난해 전미주지사협회장을 지낸 호건 주지사는 공화당 소속이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분열적 연사에 종종 쓴소리하며 각을 세웠고, 2024년 대선 공화당 주자군으로 분류된다.

미국 증오·극단주의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전체의 증오범죄는 7% 줄었지만 미국 16개 주요 도시에서 아시아계를 향한 범죄는 149% 늘었다. /연합뉴스

손해보험협회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난처한 순간

정확한 과실비율 정보로 명쾌한 순간

### 과실비율에 대한 올바른 정보로 교통사고 처리가 명쾌해집니다

모바일 APP, 웹페이지, 전화 상담으로 과실비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과실비율

과실비율 인정기준 APP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 검색]

accident.knia.or.kr [과실비율 정보 포털 접속 후 질문 & 사례집 제공]

02-3702-8500 [과실비율 ARS센터에서 전문 상담인력 상담]